순종이 제일 쉽다

(롬6:15~23)

[롬] 6: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롬] 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 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롬] 6: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순종이 제일 쉽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늘 과제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진짜 마음이 홀딱 반해서, 그분들의 설교말씀을 지독하다고 할 정도로 경청할 때였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저는 아주 그 말씀에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들이 멋졌는지 몰라요.
순종이 안 돼서 복종이라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차원에서도 큰 은혜와 유익이 돌아온다는 바람직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이것은 군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터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뚝이를 뒤집어놓은 것과 같이 하루, 아니 잠깐이면 다 되돌려지게끔 돼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항상 극기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욕심과 바람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눌러 이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극기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눌러서 이김으로써 가능한 그런 것이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뜻은 순순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반대는 반항이라든지 거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어제 읽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한다든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럴 때 사용하지요.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몸의 악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런 욕구에 순종한다는 말은 안 하지요, 보통 '그러한 탐심에 사로잡혔다, 탐심에 매여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우리의 탐심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게 사도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경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데에 사도바울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종에 관한 얘기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 그러니까 큰 줄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요 - 가지를 많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우리 몸이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생명이 뭐라고 했지요?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이식하는 대상이 생명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생명은 나의 활동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의 심장을 나 말고 다른 대상에게 갖다 옮겨줍니까?
마음을 준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옮겨놓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기에 앞서 새 생명에 대해 얘기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 생명들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구 생명들에 대해서 죽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이식하게 된다.
주님을 따라서 죽을 때라야만 주님을 따라 부활해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이식하게 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식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사시미 칼로 비유를 들며 생각한 것이, 그렇게 될 때 내 몸은 저절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병기가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켜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셔서 내 몸에서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행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내 몸이 움직일 때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인격, 내 마음, '나'라는 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므로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몸이 움직일 때는 이 몸은 내 인격이 다 하나님께로 이사 간 뒤에 빈 깡통처럼 비어있는데, 그 빈 몸을 하나님이 쥐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이식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실 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실 때,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이식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몸을 쥐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족을 얻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몸을 쥐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마음의 모드, 바로 순종이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지체를 종으로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9절에'너희의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사를 들어서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옛날 종이나 노예의 삶을 한번 연상해보시면, 주인의 명령이나 뜻에 대해서 거부감 제로인 상태가 종이나 노예의 마음이에요.
반항이나 거역 제로의 상태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기 몸을 주인에게 내어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 자기 몸을 주인에게 내어주면 자기 뜻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노예의 몸을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 이때 종도 사람인데,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있는 겁니까?
노예는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노예의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 노예의 마음은 순종이라는 마음의 모드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마음이 순종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주인의 뜻이 노예의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순종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몸의 악한 욕구에 순종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행위를 해나간다고 그럴 때, 그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움직이시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마음은 그 현장에서 순종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전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믿음 안에서 행위가 다 해결되는 길이 있다,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다 그 안에서 행위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게 순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순종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저절로 순종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여서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준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몸의 악한 욕구에도 순종한다는 말을 사도바울이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세상의 그 누구도 거역함을 행하며 살지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거역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이때 내가 갑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을에게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을에게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갑에게 거역하는 게 됩니다.
거역 자체가 우선적인 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순종하고 살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공산당혁명,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부르주아가 지배하고 있는 물적 구조의 사회체제를 뒤엎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이다, '반항'이다, 기존체제에 대한 '거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공산당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정신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부르주아의 입장에서 보면 거역으로 보일 뿐이지요.
그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취해야 될 입장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심장을 꺼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는 마음의 형식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심장을 꺼내 이식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서 붙어있는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기꺼이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심장을 이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한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심장을 꺼내주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두가 순종을 하며 사는데, 그 모두가 하는 순종을 나도 할 때 내가 하는 순종은 누구를 향한 순종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이렇게 멋진 말은 멋진 말일 뿐 실제와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의 말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혹은 죄에 순종하므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즉, 죄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에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게 된 거예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하는 딸이 있다 합시다.
이 딸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얘기합니다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극기적인 순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상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을 뿌리치고 다른 대상의 요구에 행동하는 그런 극기적인 순종이란 것은 없어요.
오직 군대나 전쟁터에서와 같이 힘의 강압에 의해서 굴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굴복은 오뚝이를 거꾸로 세워놓는 것과 같아, 반드시 다시 엎어지게 돼있습니다.
사람은 극기적인 순종 못합니다.

복종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임시적인 상태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위에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같이 무서운 피를 부르는 혁명도 순종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 채찍을 들어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실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서 가서 붙어있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 쓰고 행동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순종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마음이 달라붙어있는 대상과의 관계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대상에 대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안 지켜진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돈에 붙어있는데, 돈에 붙어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혹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 구제하면 복 주신다는 이런 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마음은 돈에 가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에 가있고 건강의 축복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충성 봉사 구제 헌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봉사 충성 구제를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질에 순종하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율법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계획과 뜻이 내 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숫자적인 교회부흥을 좋아하고 출세를 좋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의 10분의 1만 애를 써도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순종, 제일 쉬운 게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려서 내가 스스로 그 뜻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구 생명,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의 심장을 이식하고 있는 상태이니 돌이키자!

그대로 살다가는 죄의 연장이고,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과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대상을 바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이 저절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도 순간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이 가서 붙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시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든 사람이 지금도 모두 하고 있는 이 순종,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냐, 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른 대상을 향한 순종이 나가려 할 때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